

동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15번째 편지

장주영목사 사임, 이세훈 장로도 사표서 제출

**박인호, 구자민 등 겨우 부목사 2명이 우리교회 이끌어가고
당회는 이영송, 최수남, 이영세, 박환, 채홍인장로 등 5명만 남아**

지난 1월 9일 열린 당회에서 장주영목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장목사는 샌디애고에 있는 교인 50여명이 모이는 교회의 담임목사로 가게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우리 교회는 박인호, 구자민 등 두명의 부목사만 남아 있는 기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전도사님을 포함해서 20여명의 교역자들로 가득했던 우리 교회였는데 말입니다.

교역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날 열린 당회에서 이세훈 장로가 사표를 직접 제출하고 회의장을 빠져 나왔습니다. 당회원은 사표를 제출하는 즉시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세훈 장로가 시무장으로 직에서 물러남으로서 지난해 말 물러난 박제임스(한국명 박석재), 엄문섭장로 등 일시에 3명의 장로들이 물러나 우리교회 당회는 이영송, 최수남, 이영세, 박환, 채홍인등 모두 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 당회는 50여명의 장로들로 구성 되었으며 강준민 목사 때도 30여명이었는데 이제 5명이 앉아 교회 일을 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사이 전체 교인은 7-8백명으로 줄고

헌금은 바닥, 1년간 재정적자는 70여만 달러

한심하다 못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현재의 장로들이 교회 일을 맡은 이래 교인들의 수도 급격히 줄어, 3부 대예배 시간에 겨우 3-4백 명만이 참석, 한 때는 교인 수가 4-5천명 이라고 주장했던 우리 교회가 지금은 전체 적으로 7-8백 명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헌금도 바닥을 헤메면서 연간 총액이 2백만불도 안되는데 예산 통과도 없이 교회 돈을 마구 쓰더니 지난 공동회의 때 무려 70 여 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하고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1월 9일의 당회에서는 다음 주 설교목사마저 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세훈 장로가 "이렇게 됐으니 누가 우리 교회에 오겠느냐? 그러니 임동선 목사님을 모시고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으

나 어느 장로도 이를 수락하지 않아 이장로가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도 캄캄하지만 미래는 더 캄캄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영송장로, 재정, 새신자, 음악, 홍보 등 4개부서 맡고

최장로는 3개, 이, 박, 채장로는 각각 2개씩 맡고도 모자라

교육, 봉사, 유치원, 도서관 등은 집사들에게 부서장 맡겨

지난 주에 주보에 발표한 부서장 발표 내용을 보면 더 한심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영송장로는 재정부, 새신자부, 음악부 그리고 홍보부 등 4개 부서를 맡았습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고치고도 모자라 징치고 팽과리를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수남 장로는 총무, 건물관리부, 예배부들도 맡았습니다. 이영세 장로는 새가족부와 청장년 교육부 그리고 박환장로는 선교부와 교구 운영 등을 맡았습니다. 채홍인 장로는 방송부와 전산부를 맡았습니다.

한 장로가 4개 3개 그리고 최소한 2개의 부서를 맡았는데도 장로들의 수가 모자라 부서가 남아돌자 이번에는 집사들에게 부서를 맡겼습니다. 교육부, 봉사부, 유치원과 도서관, 등의 부서장을 집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당회원 장로들, 가장 중요한 교육부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

2-3명의 장로들이 맡았던 교육부, 1명의 집사가 맡다니.....

우리 교회의 대명사 중의 하나가 교육부 입니다. 자녀들을 주일 학교에 픽업 해주다가 교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보편적인 신앙 간증 중의 하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육부가 말로 어느 교회보다 우수했고 자랑스러웠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교육부에는 최소한 2명의 장로들이 역할을 분담, 열심히 봉사해 왔었다는 것은 교인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교회의 5명의 당회원 장로들은 그 교육부를 팽개친 것입니다. 물론 교육부만이 중요한 부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부서장이 된 집사들의 능력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이 모자란다면 당회도 장로 아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당회원으로 받아드리는 것이 옳다는 얘기 입니다.

수적으로 모자라고 능력이 부족하다면

자진 사퇴하고 새로운 당회 구성 바람직

이제 당회원들이 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적으로 모자라고 능력으로 부족하다면 자진 사퇴하고 새로운 당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런 경우 "거국 내각"이라는 것을 구성합니다. 교회를 파산지경으로 까지 내 몰고 있으면서도 책임을 지기는커녕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면서 자리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 5명의 장로들 즉 당회원들입니다.

공동회의 개최, 투표, 개표 모두 부정, 불법으로 얼룩 투표 결과 발표도 없이 오후에 임직식 갖기도

2010년인 지난 해 12월 26일, 주일날 동양선교교회의 정기 공동회의가 열렸었습니다.

당회원들은 이날 공동회의를 그들이 개발(?)한 박제임스 식, 즉 1, 2, 3, 4, 5부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발언권을 달라고 손을 번쩍 든 교인들의 요구는 철저하게 봉쇄했습니다. 그들은 투표용지도 모두에게 나눠주지 않고 자기편이라고 생각되는 교인들에게만 나눠줬습니다. 투표하고 난 뒤 자기들끼리 수집하고는 그 자리에서 결과 발표도 하지 않고 어디 론가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날 오후에 임직식을 하기로 한 안수집사와 권사들의 투표를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한 뒤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도 않은 채 몇 시간 만에 임직식을 가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들 멋대로"였습니다. 이런 식의 회의진행, 투표와 개표 그리고 그날 투표해서 그날 갖는 임직식, 이 모두가 창피하고 부끄럽게도 다른 곳이 아닌 우리 교회의 1년에 한번 씩 갖는 공동회의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장로피택 후보인 최형수집사, 투표용지 나눠주고 수거 하고 권사와 안수집사 후보들도 똑 같은 불법, 부정 저지르고

이날 공동회의에서 개표의 총책임은 랜디 조집사였습니다. 그리고 조집사의 부인과 딸들이 강단에 올라가 개표 작업을 했습니다. 조집사의 집안 식구들이 모두 나서서 교회 일을 도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집사의 부인인 데보라 조 집사가 이날 공동회의에서 임직을 위한 선출 대상자인 권사후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집사를 권사로 선정하는 투표의 투표함 관리와 검표를 본인을 포함한 그 집안 식구들이 맡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식의 투, 개표진행은 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는 명백한 부정이고 불법인 것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피택 장로 후보인 최형수 집사는 투표용지를 나눠주고 투표 용지를 수거해 투표함에 집어 넣는 등 사찰의 업무를 했습니다. 이 또한 부정이고 불법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교인 여러분들에게 보낸 14번째 편지에서 박석재를 비롯한 이영송, 최수남, 엄문섭, 이세훈, 이영세, 박환, 채홍인 장로 등이 제직회에 제출해서 통과시킨 결산보고서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낱알이 증거 서류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린바 있습니다.

감사도 하지 않고 결산, 예산안 통과시킨 공동회의 법도, 질서도, 윤리도, 교양도, 없는 막가파식

이들 장로들은 우리의 편지를 받은 즉시 결산서를 새로운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날 공동회의에서 박제임스(박석재) 장로는 "재정부 여직원이 타이프를 잘못 찍어 결산서에 차질이 있었다"고 공식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타이프를 몇 개 잘못 찍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제직

회때 통과된 것과 이날 정기공동회의 때 통과시킨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럴듯하게 조작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결산서는 그 전 것보다 더 큰 모순 덩어리 였습니다.

우선, 결산통과를 위한 감사보고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0여년 동안 단 한번도 감사보고 없이 지출을 통과시킨 일이 없으며 심지어 그들이 치렀던 1년 전인 지난 2010년도에도 결산 때 감사보고를 했습니다. 동창회와 같은 친목단체도 감사를 합니다. 강준민목사는 “외부 감사”라는 희한한 제도를 도입, 현재의 장로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장로들이, 당회원 장로들이 이번에 아예 감사 자체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교인 여러분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사람이기에 실수도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우리교회 당회원 장로들의 법도, 질서도, 윤리도, 교양도, 없는 막가파식의 이런 부끄럽고 창피하다 못해 슬픔이 치솟아 오르는 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날 공동회의에 제출한 수입 및 지출결산서를 살펴보겠습니다.(다음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제직회 때 통과시킨 지난 2010년 1년간 우리 교회의 수입총액은 61여 만 달러였습니다. 지난번 편지에서 우리는 현금만 어림잡아도 168여 만 달러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번 공동회의에서 이들은 현금이 150여 만 달러, 총 수입은 175여 만 달러로 바꿔 통과시켰습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우리들의 주장과 맞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의 주장을 인정한 것입니다.

제직회때 통과시킨 결산서 공동회의 것과 달라 당회보고서, 그때 그때 서류마다 액수가 서로 달라

지출의 경우 제직회 때 통과된 액수는 98만 4천 달러였습니다. 이번 공동회의 때는 2백 42만 6천달러라고 크게 늘려 수정했습니다. 얼마나 엉터리 인가를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자 누계입니다. 공동회의 자료에는 11월말 우리 교회의 적자 누계가 67만 6천 999달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정도 전인 지난해 12월 10일 제직회 때 재정부가 나눠준 보고서(도표 사본을 참고하십시오)에 따르면 11월 말까지의 적자 누계는 48만 5천달러 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적자를 20여만 달러나 멋대로 늘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적자 바로 밑에 “전기 이월”이라는 항목에서 2009년에 넘어온 적자가 70여만 달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준민 목사가 나가고 우리가 교회에 들어 온 때는 2009년 11월이었습니다. 그 보고서 대로 라면 11월과 12월 두달 사이에 적자가 70 여 만 달러이었다는 것입니다.

11월말 적자 누계, 2주전 48만불로 밝혀 놓고 67만달러로 보고 강목사가 두고간 돈 174만불이었는데 적자가 70만불이라니.....

재정부가 4월의 제직회 때 발표한 자료(별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에 따르면 강준민 목사가 떠날 때 우리 은행 구좌에 남겨두고 간 총액은 1백54만 6천930달러였습니다. 여기에서 선교부 기금 20만 달러를 합하면 1백 74만 여 달러에 이릅니다. 그 해 11월과 12월의 적자를 20만 달러였다고 치더라도 2009년 말에 우리교회는 1백50여만 달러의 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당회원들은 그 때 당시의 적자가 70여만 달러였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교회는 지금 모두

1백37만8천822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 통과시킨 것입니다.

교인들 모르게 자기들 멋대로 돈을 쓴 것입니다. 그 차액이 무려 2백 40여 만 달러(2010년도 적자누계 차액, 20만 달러+2009년 잔고 1백50여 만 달러+2009년도 적자 누계 70만 달러)입니다. 지난 편지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모든 조작된 통계는 LA 중앙일보 문화원에서 회계학을 강의했던 장주영 목사와 현직 CPA인 이승래집사가 만들어 낸 것입니다. 누가 봐도 엉터리인 이런 보고서를 만든 그들의 수준도 수준이지만 왜 이런 엉터리 통계를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2010년 수입 및 지출 보고서

2010년 11월 30일 현재

항 목	2010년 예산	2010년 실적	연간비율	
수입	3000000	4,500,000.00	1,749,411.34	38.9
경상수입	3010000	4,200,000.00	1,491,732.19	35.5
십일조	3010100	2,400,000.00	743,946.64	31.0
작정	3010200	160,000.00	65,547.48	41.0
감사	3010400	460,000.00	164,796.20	35.8
주일	3010500	240,000.00	142,927.38	59.6
선교	3010600	520,000.00	189,146.25	36.4
신년	3010700	36,000.00	26,721.00	74.2
부활절	3010800	52,000.00	17,958.00	34.5
추수감사절	3010900	92,000.00	998.00	1.1
성탄절	3011000	48,000.00	33,410.00	69.6
창립 기념	3011100	32,000.00	9,228.00	28.8
기관	3020000	140,000.00	29,052.83	20.8
기타	3040000	20,000.00	68,000.41	340.0
특별헌금	3050000	300,000.00	257,679.15	85.9
기타특별헌금	3050300	300,000.00	257,679.15	85.9
지출	5000000	4,500,000.00	2,426,410.57	53.9
성인예배	5A10000	20,000.00	18,991.96	95.0
열린예배	5A20000	51,000.00	42,351.93	83.0
젊은이예배	5A30000	30,000.00	19,888.01	66.3
음악부	5N10000	59,000.00	10,950.00	18.6
선교부	5B10000	775,000.00	46,126.00	6.0
월드미션신학교	5B40000	90,000.00		0.0
교회학교위원회	5C00000	255,080.00	148,812.08	58.3
한어대학부	5D10000	15,000.00	21,582.77	143.9
청년부	5D20000	36,000.00	7,022.00	19.5
성서대학/장년교육	5E50000	5,000.00	251.00	5.0
제작훈련	5E60000	2,000.00	267.63	13.4
교구운영위원회	5F00000	57,000.00	2,244.88	3.9
봉사위원회	5G00000	84,000.00	61,824.48	73.6
재정위원회	5J10000	1,018,000.00	891,161.68	87.5
총무위원회	5K10000	1,113,000.00	835,330.62	75.1
방송부	5K20000	40,000.00	13,493.23	33.7
전산/인터넷	5B60000	43,000.00	2,500.00	5.8
홍보 출판팀	5K40000	23,000.00	8,214.00	35.7
도서 및 문서관리	5K50000	3,300.00	7,183.67	217.7
의료사역	5K60000	1,200.00		0.0
영어대학부	5L10000	17,000.00		0.0
예비비	5M10000	262,420.00	282,991.20	107.8
교회발전기금	5N10000	500,000.00	5,223.43	1.0
차 액	9000000		-676,999.23	
이월금		전기이월	-701,823.53	
		차기이월	-1,378,822.76	

우리는 처음에 그 비용이 바로 변호사 비용과 시큐리티 가드 동원 비용 그리고 흥민기목사 구결 청빙 비용 등으로 썼을 것이라고 추측했었습니다. 그러나 없어진 액수는 지금까지 설명드린대로 그 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국 우리교회의 당회원들 그리고 거기에 장주영목사와 이승래 집사까지 합세해 불법, 부정한 방법으로 교회 돈을 빼 돌린 것이 틀림 없습니다. 우선, 그들이 발표한 모든 자료들의 액수가 서로 다르고 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숨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당하게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실을 숨기면 그것이 바로 부정이고 불법인 것입니다.

재정부

As of November 30, 2010

1) 월별 수입 및 지출 실적 분석표

월	수 입						지 출				
	예산	현금실적	예산대실적		작년대비		금년도	작년도	작년대비		차기이월
			차액	비율	실적	비율			차액	비율	
11월 10년	412,333	123,657	288,676	30.0%	769,231	16.1%	109,448	590,694	-481,246	18.5%	-499,513
TOTAL	412,333	123,657	288,676	0	769,231	16.1%	109,448	590,694	-481,246	0	-485,304

*선교부 SAGE Acct \$ 200,000
\$ 1,236,474

10월 총 은행 잔금	현은행 잔고
\$1,546,930	\$1,036,474

사진설명 : 앞페이지의 도표가 이번 공동회의에 제출한 수입 및 지출 보고서이다. 마지막 부분의 원형으로 표시한 첫번째가 2010년 11월말 재정적자의 누계로 67만 6999달러로 돼있고 그 아래가 전기 즉 2009년의 적자로 70만 1823달러로 돼있으며 전체적인 적자 총계는 바로 그 아래의 1백37만 8822달러라는 것이 이날 발표한 내용이다. 2번째 도표는 공동총회 2주전 재직회때 재정부가 나눠준 보고서 중에서 수입,지출 부분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1월말 현재 우리 교회의 적자 누계는 48만 5304달러로 돼있다. 같은 것인데도 액수가 다르다. 그동안 재정부가 재직회때 나눠준 자료를 종합해보면 두번째 도표의 액수가 맞고 따라서 공동회의 때 보고한 첫번째 도표의 액수는 조작한 것이다. 3번째 도표는 역시 재정부가 지난 해 4월 재직회때 발표한 것으로 강목사가 떠났을 때인 2009년 10월 말 현재 우리 교회의 은행 잔고 내용이다. 154만 여 달러였다. 그 옆에 보면 선교부의 구좌에 20만 달러가 있다는 기록이 있다. 결국 강목사는 나갈 때 174만 달러를 남겨두고 간 것이다.

또 하나 이들 장로들은 단 한 차례도 이 같은 의문에 대한 공개적인 설명을 한 일이 없습니다. 재직회나 공동회의 때 이런 질문을 하면 "당신은 그런 질문을 할 자격이 없다"면서 발언 자체를 중지시켜 왔습니다. 회의는 그 때문에 파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명 안 되는 당회원 장로들은 "저 사람들이 회의진행을 못하게 한다"면서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를

우리교회 헌법에도 없는 “교인 자격 정지”라는 징계를 내렸고 왜 그리고 어떤 조항에 의해서 우리를 징계했느냐는 항의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얼굴을 붉히며 얼버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우리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해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변호사비를 내면서 법원에 무려 4번의 소송을 냈지만 단 한번의 승소없이 번번이 패소했었습니다. 그 때마다 판사들은 어이가 없어 한심스럽다는 표정으로 “애들 처럼 보채지 말라” 는 등 창피만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또 다른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신성한 교회 돈을 불법, 부정으로 빼 돌린 엄청난 죄악이 밝혀지지 않도록 하기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까지 우리가 밝힌 것들이 사실과 다르다면 전체 교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정당하게 사실을 밝히고 차라리 공개적으로 우리를 비난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문제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공개 토론회에서 정정당당하게 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림픽 경찰서 한인 경찰, 강대상에 올라 “체포하겠다”고 으름장 신성한 교회에 수사관 들어오도록 한것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처사

공동총회가 거의 다 끝날 무렵에 올림픽 경찰서의 한국인 경찰이 강대상에 올라와 “더 소란을 피우면 체포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경찰이 한국인 이라는데 창피했습니다. 예배시간이 아닌 회의 시간인데 반대와 찬성이 있는 것이고 때로는 큰 소리와 소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의장, 그것도 성스런 교회의 강단에 일개 경찰이 올라와 훈시를 하듯 무식한 강론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경찰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의원들이 시끄럽게 굴고 파행을 겪고 있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미군을 파견해서 체포할 수 있단 말인가?” “지난번 한국 국회에서는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정도의 혼란과 소동이 있었다. 그 때 이명박 대통령이 육군 특공대를 파견,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갔다면 그것이 옳은 일인가”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으로 경찰을 끌어들이는 장로들입니다. 어느 경우든 수사기관원이 성스러운 교회에 들어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인들을 체포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5.16군사 정권 때 심지어 계엄군도 서울의 명동성당에 진입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날 경찰의 교회 예배당 진입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체 한인교회가 들고 일어나야 하며 여기에 미국교회도 합류, 이를 규탄해야 옳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날 경찰의 교회 진입을 진두지휘한 엄창웅집사는 마땅히 교회 차원에서 처벌해야 할 일입니다. 더구나 엄집사는 이 회의에서 장로피택의 후보중의 하나였습니다. 자기의 장로피택을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경찰을 동원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장로들이라면 경찰의 예배당 진입을 막아야 했으며 더구나 강단에 올라가 “소란을 피우면 교인들을 체포 하겠다”는 발언을 듣고 희희 낙낙거렸다면 그것은 장로로서는 물론이고 신자로서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상대가 아닌 불법, 탈법자를 상대로 한 개인간의 소송 “정통회 회원들이 집단으로 소송제기했다” 예배시간에 광고

2010년인 지난 해 12월 19일 주일 3부 대예배시간에 자칭 임시당회장이라고 주장한 박제임스(한국명:박석재)장로가 느닷없이 강단에 올라가 광고를 했습니다. 박장로가 밝힌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김대복집사가 박석재장로와 엄창웅집사를, 2), 차기동 집사가 이세훈장로를, 3) 라철삼집사가 엄창웅, 최형수집사를, 그리고 4), 이성주 성도가 박환장로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장로의 이날 광고의 저의는 정통회 회원들이 이처럼 장로측을 집단으로 법정으로 끌고 갔으며 이 때문에 교회 돈이 허비된다는 그릇된 정보를 교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가증스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선, 박제임스(박석재)를 비롯한 이영송, 최수남, 엄문섭, 이세훈, 이영세, 박환, 채홍인 등 장로들은 지난해 3월부터 무려 4차례나 우리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기위한 소송을 제기, 모두 패소했으며 아직도 한 개의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돈을 써 가면서 소송을 시작한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 소송을 위해서 장로들은 교인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하나님에게 바친 헌금 가운데 수십만 달러를 소비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즉, 장로들이 아니라 정통회 회원들이 소송을 해와 할 수 없이 변호사를 사야하며 그래서 교회 돈이 빠져 나간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기 위한 의도로 이날 이런 광고를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우리가 접수시킨 소송은 모두 개인적인 것으로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경우를 쉽게 설명하면 박제임스 장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잘못돼 소송을 당했는데 그것을 교회 광고시간에 발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순서대로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대복 집사 교회 철문에 무릎 다쳐 지난 10월에 수술 시큐리티회사와 뒤에서 이를 지휘한 박석재, 엄창웅 소송당해

- 1) 지난 7월 25일 흥민기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기 위해 열렸던 영터리 공동회의 때 시큐리티 가드들이 교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김대복 집사님이 들어가려하자 이들 가드들이 갑자기 완력으로 철문을 닫는 바람에 김대복집사님의 발이 문틈에 끼었으며 이 사고로 김집사님은 무릎 뼈가 부서지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대복 집사님은 이 사고로 지난 10월 26일 수술을 받았으며 아직도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날 가드들을 이렇게 하도록 뒤에서 지시한 사람이 바로 박제임스장로와 엄창웅집사였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이들은 단 한번의 사과 인사를 한 일이 없습니다. 김집사님은 올해 84세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 많은 분 중의 한 분입니다. 김집사님은 이들과 시큐리티가드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차귀동집사를 “살인 미수”죄로 허위고발한 이세훈 장로 소송당해
LA 시 검찰 무혐의 처리, 이 장로 미안하다는 사과하나 없어**

- 2) 지난해 8월 15일 교회 옆 웨스턴 길에서 차귀동집사와 이세훈장로가 몸싸움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밀치는 가운데 차집사가 이장로를 차도 쪽으로 미는 사진을 최형수집사가 찍었습니다. 이세훈 장로는 이 사진을 근거로 차집사를 “살인 미수”라는 엄청난 죄를 덮어 씌워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한 뒤 박제임스를 비롯한 4, 5명의 장로들이 경찰과 검찰에 출두, 거짓증언을 했으나 LA시 검찰은 지난해 10월 10일 차집사 사건을 무혐의처리 했습니다. 한 교회에 다니는 교인을 그렇게 엄청난 죄목으로 몰아 부친것도 잘못이지만 이세훈 장로 역시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사과를 한 일이 없습니다.

**라철삼 집사 강도로 허위 신고한 최형수집사
사실을 알고도 말하지 않은 엄창웅집사 소송당해**

- 3) 지난 9월 26일 주일에 최형수집사가 본당 주차장에서 다른 교인과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라철삼집사가 싸우지 말도록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최집사가 가지고 있던 카메라를 마침 가까이에 있는 엄창웅집사에게 주었습니다. 그 때 엄창웅집사가 라철삼집사에게 “이 카메라는 교회 것입니다”고 스스로 밝혔고 라집사가 “교회 것이라면 잘 보관해야지 싸우다 부서지면 어떻게 하느냐 우선 내가 보관 하겠다”면서 카메라를 달라고 하자 엄집사가 라집사에게 카메라를 주었습니다. 라집사는 그 카메라를 바로 옆에 주차돼있는 라집사의 자동차 안에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이 오자 최집사는 “라집사와 싸웠는데 내 손에 든 카메라를 라집사가 강탈해 갔다”고 거짓으로 신고, 라집사는 수갑에 채워져 경찰에 잡혀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최집사는 거짓으로 신고했고 엄집사는 최집사가 아니라 본인이 라집사에게 카메라를 주었는데도 고의적으로 그 사실을 경찰에 말하지 않아 라집사를 어렵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카운티 검찰에 의해서 바로 기각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두 집사역시 해를 넘긴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사과 인사조차 한 일이 없습니다. 사과는 커녕 최집사는 교회 복도에서 만난 라집사에게 “은팔찌를 찬 소감이 어땠느냐?”는 등 비아냥거리기까지 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실로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꾸짖은 바 있습니다.

**박환 장로 이성주 장로에 발길 질, 전치 22주의 중상
“다치지도 않았는데 싸메고 다닌다” 박장로 소송당해**

- 4) 박제임스 장로는 이성주 성도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성주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은 올해 82세로 몇 분 안 되는 가장 나이 많은 교인 중의 한 분입니다. 지난 3월 26일 장로들과 후보문제로 다툼이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장로님이 땅에 흩어진 후보를 줍고 있었는데 박환 장로가 줍지 못하게 발로 걷어찼습니다. 공교롭게도 박환장로의 걷어찬 발이 이장로님

의 손에 맞아 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박환 장로가 고의적으로 이장로님을 다치게 하기위해 발로 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장로님은 이 사고로 금이 간 뼈가 쉽게 아물지 않아 22주 동안이나 손을 싸매고 병원을 다녔으며 그 뒤에 16주나 한 방치료를 받는 등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물론 박장로는 말인사로라도 단 한 번의 사과를 한 일이 없습니다. 박환장로는 오히려 “다치지도 않았는데 손을 싸매고 다닌다”면서 주위사람들에게 이장로님을 비난하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대로 이 모든 소송은 교회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소송을 당한 장로나 집사들이 지탄받을 만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 잘못에 대한 개인적인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박제임스(박석재)장로가 대예배시간에 강단에 올라가 설쳐대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코리아 라이프 Korean Life
http://klifeusa.com

동양선교교회
ORIENTAL MISSION CHURCH

HOME 뉴스/민문/역사 칼럼 건강생활 종교생활 문예마당 동양선교교회 자유게시판

동양선교교회 교인들을 위한 웹사이트가 마련돼 있습니다.

www.klifeusa.com 에 가시면 동양선교교회란이 있고 그곳을 클릭하면 이 글을 포함해서 동양선교교회의 최근 소식 등 많은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직접 글을 쓰실 수 있고 댓글도 달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방법도 그 안에 기록돼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또 한인 사회의 뉴스와 문학인들을 위한 “문예 마당” 란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나 수필, 단편 등을 통해 직접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www.klifeusa.com 입니다.